

23.07.08 신박한 연구전담 토론문

현우식(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이준형 선생님의 논문은 포퓰리즘을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행과 거리를 두면서 포퓰리즘에 담겨 있는 대중적 열망을 민주적 또는 좌파적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론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서유럽을 중심으로 좌파 포퓰리즘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탈 무폐가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라는 저작을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도 좌파 포퓰리즘 전략의 한국적 수용을 둘러싼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글은 셸러브리티 포퓰리즘이라는 정치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적 좌파 포퓰리즘 전략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의 민주적 측면, 혹은 적어도 양가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포퓰리즘 연구에서는 포퓰리즘의 부정적 측면이 과잉재현되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 전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한국에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고 정체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좌파 포퓰리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포퓰리즘이 갖고 있는 혼종성과 불안정성이 주로 부정적인 맥락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주로 민주주의 질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드러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 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포퓰리즘 연구는 포퓰리즘 현상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대표의 위기를 들고 있다. 이는 포스트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주로 표현된다. 틀린 분석은 아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현상이 위기와 결부되면서 그것이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그 일시성과 우발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포퓰리즘 현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정형의 불만을 함축하고 있는 맹아적 상태의 운동으로 여기게 만든다. 포퓰리즘 전략에 관한 논의에서도 그것을 민주적 혹은 좌파적으로 전유할 수 있게 하는 규범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예컨대 포퓰리즘 전략이 반드시 좌파적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포퓰리즘 연구에서는 포퓰리즘에 내재한 불안정성과 혼종성이 그 한계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현상적이고 경험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것'의 논리로 보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논의를 따라가면, 포퓰리즘의 불안정성과 혼종성을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클라우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제도정치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집합정체성이 형성되는 논리를 말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따른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의 갈등적이고 역동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포퓰리즘의 종말은 정치의 종말과 일치한다”라는 라클라우의 말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정치의 해소 불가능한 항상적이고 항구적인 부정적 차원인 정치적인 것의 논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정태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용어라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정치의 갈등적이고 역동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차원의 구성적인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포퓰리즘에 내재한 불안정성과 혼종성은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의 환원 불가능한 부정성과 적대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불안정성과 혼종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실천과 전략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이다. 포퓰리즘에 민주적인 요소와 반민주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포퓰리즘 전략이 좌파적인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확실성 표지의 해체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적인 성격이다. 포퓰리즘이라는 개념 앞에서 갖는 머뭇거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좌파 포퓰리즘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반본질주의 정치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준형 선생님의 논문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정치철학적 논의를 제시하는 데 머무른 라클라우의 논의를 역사화하고 이를 정치의 미디어화와 관련된 유기적이고 국면적인 분석과 연결시켰다는 데 있다. 본문에서는 정치의 미디어화의 결과로 미디어화된 포퓰리즘 정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촛불국면에서 진영화된 미디어 정치의 자유주의적 편향으로 인해 포퓰리즘적인 열망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 전략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주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략의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조건을 면밀히 밝힘으로써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시대에 좌파 포퓰리즘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논의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문재인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이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열망을 어떻게 수동혁명적으로 좌절시켰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비하면 후반부의 좌파 포퓰리즘 전략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원론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단지 이 글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좌파 포퓰리즘 논의가 멈추어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지점이다. 좌파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전략이 배제된 자들(플레브스)를 전체(포퓰루스)로 재현해내는 정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배제된 자들을 호명하며 그들을 정치적인 인물로서 서사화하고 정서화함으로써 셀러브리티가 급진성의 부재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대중 세력의 정치적 주체성에 파열을 내고 또 급진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준형 선생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셀러브리티 포폴리즘 시대에 좌파 포폴리즘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여전히 우리는 포폴리즘이라는 개념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셀러브리티 포폴리즘 시대에 좌파 포폴리즘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이준형 선생님의 질문에 다소 논쟁적이고 실천적인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응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 쟁점은 좌파 포폴리즘 전략에서 정당정치 역할이라는 쟁점이다. 정치의 미디어화라는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폴리즘 현상은 제도권 정당을 우회하기 보다는 제도권 정당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고 진보정당 운동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정치의 진영적인 논리를 다원적인 정치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의 가능성은 매우 제약되어 있다. 역사적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스케줄에 맞추어 움직여야 하는 정당 내부에서는 이런 토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비판적인 조건을 기회로 삼아 정당정치의 역할에 대한 발본적이고 메타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령 정당은 여전히 사회변혁의 유효한 도구인가? 좌파 포폴리즘 전략에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은 기존 진보정당에 국한되는가? 보수 자유주의 정당 대 진보정당이라는 구도는 온당한가? 매우 논쟁적인 질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역사적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건너뛴 채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정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시도를 냉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에너지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 운동에 상처받고 실망한 상태로 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조직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토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토론이 상실된 것이 문제이다. 기성 세대는 너무 빨리 스스로를 낡은 것으로 여기고 있고 새로운 세대는 무엇이 새로운지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정치가 적어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조건이며, 풀리지 않는 물음이라면 이 주제를 통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쟁점은 좌파 포폴리즘이 배제된 자들의 집합적 기억과 정동을 어떻게 서사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러한 서사화를 가능케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보다 현재 그러한 집합적 기억과 정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그것은 주로 소외되고 주변화된 노동자의 기억과 정동이었던 것 같다. 노회찬의 6411번 버스 연설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배제를 낳는 착취와 억압의 기제들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배제된 자들의 집합적 기억과 정동 또한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내 삶의 경험에서 그것은 주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표상된다. 기본적인 주거, 일자리, 취업차

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언제라도 폐기가능한 인구가 될 수 있다는 생명정치적 상황에서 불안감은 더욱 만성화되고 있고 신체와 무의식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공유된 불안감은 정치적 연대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연대를 어렵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혐오는 상대방을 타자화하고 폭력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려 하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혐오의 정치가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중국에는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좌파정치는 이 만성적으로 퍼져 있는 이 막연한 불안감을 서사화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불안감이 위계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개인적 삶의 취약함에 대한 발화가 경쟁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발화는 차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공통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상의 두 가지 쟁점은 매우 잠정적인 것이며 토론을 통해 확장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이준형 선생님의 연구가 매우 반가웠다. 문화연구의 탈정치화 경향을 지적하면서 스템어트 홀의 <위기관리>가 성취한 거시적인 사회구성체의 문화정치경제적 흐름과 문화적이고 국면적인 현상을 연관짓고자 하는 선생님의 고민과 사회학이라는 분과학문을 배경으로 라클라우를 경유하여 비판적 지식의 재생산의 조건을 묻고자 하는 저의 고민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공동의 작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두보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다.